

정부가 레인포컴퍼니 플랫폼운송사업자에 일반인 호출을 허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

< 보도 내용 (한국경제 1.17) >

◆ 타다 퇴출 4년 만에... '혁신 택시' 시동 건다

○ 플랫폼운송사업(타입1) 택시가 일반승객의 호출을 받는 것을 정부가 허용했다.

□ 레인포컴퍼니는 외국인, 기업 간 차량지원(B2B) 대상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토록 플랫폼운송사업허가(Type1)를 받은 사업자입니다.

○ 이에, 국토교통부는 레인포컴퍼니의 우티 플랫폼 연계를 인가하면서, 외국인, 기업 간 차량지원(B2B)으로 이용대상을 한정토록 하였습니다.

□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레인포컴퍼니에 일반인 호출을 허용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.

○ 다만,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플랫폼운송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	책임자	팀 장	조태영 (044-201-4770)
		담당자	사무관	노지훈 (044-201-4756)
			사무관	서윤원 (044-201-3813)